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정애



201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광주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행복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해에는 양극화나 불평등이나 하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양극화와 불평등 현상은 비단 경제적 측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의료와 건강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건강 불평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빈곤과 건강 불평등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열악한 환경과 생활 조건에서 살아가는 빈곤한 사람들은 질병에 노출되는 위험이 부유한 사람에 비해 더 높다. 이처럼 건강 불평등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환경과 상황,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의 박탈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경제적 불평

등은 고스란히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건강 불평등을 중요한 사회문제라 인식하고 이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세계의 어느 사회에나 사회경제적 지위 간 건강 불평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건강 불평등의 문제를 사회의 중요한 어젠다로 부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건강 불평등은 인생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노년기에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이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빈곤과 건강의 문제를 갖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건강 불평등 현상은 단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으로 대물림된다는 데에 더 심각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한 가계의 3대에 걸친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 사례 연구는 가난의 대물림이 자녀들의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광주시는 지난 2009년 6월에 문을 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어도 모든 노인들에게 향평성 있게,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접근성 문제나 비용 등 이용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 노인복지시설 못지 않은 최고의 시설이라고 자랑하는 노인건강타운에 걸맞게, 노인들을 위한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함과 더불어,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노인들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적극적인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부디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이 어르신들의 성공적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역할뿐 아니라, 앞으로 의료서비스와 실버산업 등으로까지 확대 발전하여 광주가 세계적 노인복지 메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남대 의대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령사회와 건강 불평등

노인복합 여가문화시설인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에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건강, 오락,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인 건강타운 내에 퇴행성질환전문병원, 치매병원 그리고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등이 진행 중이어서 시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도래하는 고령사회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건설된 노인건강타운이 모든 광주

법조칼럼

김재호



“여자 초등생 유인 실패하자 주먹질 20대 딸미, 학교 여자친구 술 먹이고 성폭행한 3명 달미, 광주 2년 연속 교통사고 발생률 최고 오명...” 요즘 신문 지면이나 방송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기사들이다. 이러한 기사들을 보면서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필자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상은 어떠한가?”와 같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보존 상태가 동일한 두 대의 자동차 중 한 대는 보닛만 열어놓고, 다른 한 대는 창문을 조금

지하철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 나서는 철저하게 지우는 대책을 제안했다. 당시 교통국의 대미 간 국장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5년에 걸쳐 약 6000대에 달하는 차량의 나사를 지우는 작업을 단행했다. 그 결과 2년 후부터 뉴욕 지하철에서의 흉악 범죄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1994년에는 절반 가까이 감소하여 결국 지하철 중범죄 사건이 75%나 급감했다. 1994년 뉴욕 시장에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은 이 대책을 뉴욕 경찰에 도입하여 범죄율을 철저히 단속했

우리집 유리창은 깨져 있지 않은가?

겐 상태로 1주일간 방치해 두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1주일 후 두 자동차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보닛만 열어둔 자동차는 특별히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차의 유리창을 켜 상태로 놓아둔 자동차는 겨우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타이어도 전부 없어졌으며, 1주일 후에는 고철 상태가 될 정도로 파손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과 조지 칼링(George L. Kelling)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 법칙(Broken Windows Theory)’이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법칙은 세계 유수의 범죄 도시였던 뉴욕의 치안 대책에도 사용됐다. 1980년대 뉴욕에서는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이 일어났고, ‘뉴욕의 지하철은 절대 타지 마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치안이 형편 없었다. 미국의 라토가스 대학의 켈빈 교수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근거해서 뉴욕

다. 그 결과, 범죄 발생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마침내 ‘범죄 도시’의 오명을 벗는 데 성공했다. 요즘의 우리 사회는 ‘유증운전도 죄가 되느냐’는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법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사람이 많고,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를 위반해 단속되면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갖는 경우도 많다. 검찰에서는 ‘법집서 바로 세우기’가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살인·성폭력 등 강력사건은 물론, 기본 법집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우리가 기본 법집서를 가법게 생각하거나, 작고 사소한 보이는 범죄를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큰 고통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사회를 물려줄 것인가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로 결정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깨어진 유리창 법칙’이 실현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내 집, 내 이웃의 유리창이 깨져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차분하게 살펴볼 일이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기고

이은방



전국 축산농가가 구제역으로 초도화되고 있다. 여기에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잇따르면서 국가적인 재앙사태를 맞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안동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한 구제역은 인천·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 등 6개 시·도, 52개 시·군 165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160여만 마리의 소·돼지가 살처분 됐다. 또한, AI가 지난해 말 전북 익산과 충남 천안에서 첫 확인된 이후 전남도에서만 270여만 마리가 넘는 오리·닭 등 가금류가 살처분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절대 안 될 일이다. 광주·전남이 무너지면 농민들의 상실감과 농촌경제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관련 산업체와 음식점 등이 문을 닫고, 축산·가금류의 수입으로 인한 외화 낭비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엄청날 것은 분명한 일이다. 구제역 예방과 AI확산 방지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어야 한다. 농촌을 살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농가, 자치단체 등 국가기관, 시·도민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 농가와 농협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함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긴밀

구제역·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 더구나 구제역과 AI의 확산 기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동안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은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구제역이 발생 초기에 방역이나 외부통제 등 대처를 제대로 했다면 확산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AI도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인력과 장비 등이 부족해 곳곳에서 방역망이 풀리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우리 광주·전남지역은 구제역에서는 아직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AI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구제역 예방대책과 함께 AI 확산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청정지역인 광주·전남이 구제역으로 무너지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 광주의 축산 규모가 전국의 0.1%인 1만6000여 마리, 가금류가 전국의 0.07%인 92만여 마리에 불과하나 광주시민에게 제공되는 친환경 축산물이 구제역과 AI로 피해를 보는

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홍보와 외부통제, 방역약품, 백신확보 등 특단의 방역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특히 다음달 초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면 사람과 차량이 대거 농촌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염의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대한 방역계획도 철저히 수립시행 해야 한다. 그리고 시·도민들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촌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할 경우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간다면 우리 지역의 친환경 축산물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약무호남(若無湖南) 시무국가(是無國家)’라고 했다. 우리 광주·전남은 고금을 통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힘을 합쳐 기울여가는 국운을 일으켜 세운 위대한 정신을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지역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위대한 정신과 자력을 살려 구제역과 AI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광주·전남을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의회 부의장>

외국인 노동자들 비상시 연락 가능한 증서 만들었으면

얼마 전 저녁 늦게 나갔다가 시 외곽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2명이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채 발을 동동 구르며 우두커니 서있는 것을 보았다. 평소나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아 도와주려는 마음에 다가가 말을 걸었다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기가 했다. 도와주려는 생각으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디서 일하는지를 물었지만 한국말을 전혀 못 알아 들어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한참 뒤에야 한 사람이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들이 일하는 공장으로 연결됐다. 전후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해 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곤란한 상황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근무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만들었으면 한다. 또, 비상시에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줘 위급한 상황에서 범죄피해를 입거나, 오히려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유지영·목포시 수감동

시설

F1, 카보 ‘수술’ 이제 성공개최에 힘 쏟아야

F1(포뮬러원) 대회 운영법인 KAVO가 14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잇달아 열고 정영호 대표 등 KAVO 핵심 임원진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F1 대회조직위원회가 KAVO 기능을 사실상 흡수하는 직제개편안이 문 광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대회 운영 구조 개편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우리는 그동안 KAVO측의 방만한 운영과 지난 1회 대회의 총체적 부실 등을 따져볼 때 핵심 임원진의 해임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사회가 해임 사유로 내세운 수익사업과 대회 속박과 교통,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담당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정부 또한 경기장 추가 공사비 308억 원과 200억 원만 책정한 운영비를 더 늘려 지원하지 않으면 대회 개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F1이 명실상부한 전남의 성장동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하란 얘기다.

방만한 KAVO 운영과 준비 소홀 등으로 ‘부실 대회’라는 평가를 받은 것 역시 임원진의 책임이 크다. 자본금이 바닷간 상황에서도 정 대표 등 임원들에게 역대가 넘는 연봉을 지급해 물의를 빚은 것도 분명 귀책 사유가 되는 것이다. 특히 무산 우려까지 낳았던 경기장 공사 지연과 6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증액 문제도 임원진에게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책임 소재가 가려진만큼 올 F1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 지난 대회에서 낙제점으로 지적된 운영의 문제점 등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안들이다. 지난 대회 입장권 판매와 스폰서십 유치 등 수익사업에서 최악의 실적을 낸데 대해 F1 대회 개최 준비 및 운영을 책임진 KAVO 임원진으로서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다. 입장권 판매가 60%에도 미치지 못해 주민들을 동원하는 헤프닝까지 벌어지 않았는가.

장애여성 성매매 방지, 인권 말할 수 있나

최근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14일 20대 지적장애 여성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손모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손씨도 지적장애인으로 A씨와 가출해 함께 생활해오다 돈이 궁해져서 A씨가 자신 보다 지능이 떨어진 점을 이용해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20대 지적장애 여성 B씨와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8차례나 주선해준 돈을 뜯어낸 이모씨(20) 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B씨가 성매매를 거부하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장애여성 성매매는 지적장애 특성상의 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점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응시받지 못할 범죄다. 또한 정상인이 장애인인지 뻔히 알면서 성매매를 한 행위는 더욱 가증스럽다. 성매매는 불법행위일뿐 아니라 자신의 의

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여성과의 성관계는 명백한 인권유린이기 때문이다.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적장애 여성의 대부분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가족들로부터도 방치된 경우가 많다. 이들에 대한 주위의 관심과 애정이 절실한 이유다.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권의식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장애여성 성매매 방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혹한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인권을 부르짖는 것은 위선(偽善)이다. 장애여성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성범죄와 같이 명단공개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애여성지정 신적·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자활 프로그램 도입 등 제도적 시스템이 완비돼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와 고용에 우리 모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일본은 지난해 9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발생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 사건을 겪으며 자위대국 중국의 힘을 절감해야 했다. 자신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고기잡이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구속했지만 보름여 만에 석방하고 말았다. 중국 정부가 희토류(稀土類) 수출을 중단하며 압력을 가하자 사실상 ‘백기 투항’한 셈이다. 천연자원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신(新) 냉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천연자원이 소리가 없는 전쟁의 무기가 된 것은, 공급은 줄고 수요는 자꾸만 늘고 있는 탓이다. 자원전쟁은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의 자리를 쟁한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그 중심에 희토류가 있다. 글자 그대로 ‘희귀한 흙’인 희토류는 지구상에 극히 미량으로 존재하는 스칸듐(Scandium)과 이트륨(Yttrium) 등 17개 희귀원소의 통칭이다. 이들 원소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돼 있고 열을 잘 전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덕분에

세계가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희토류 생산의 9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나이가 아프리카, 중남미와의 경제 협력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각종 희귀금속 자원을 선점하고 있다. LED와 풍력발전 위 경제대국의 자리를 쟁한 중국이 주광주·전남에도 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희귀금속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원천 기술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적으로 대체기술 개발과 자원 확보를 서둘러야 하는 까닭이다. /정후식 정책부장 who@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리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광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독신칭·매일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제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사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디 지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